



보험계리사 역할 확대와 제도개선의 필요성

김규동 연구위원

보험계리사의 역할 확대로 인해 보험계리사를 보다 합리적인 기준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노력은 20여 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보험계리사 제도는 선진국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견해가 있었음. 이에 감독당국은 평가범위 확대, 과목별 합격 인정 등 보험계리사 시험제도를 개정하였는데, 이는 예전 제도에 비해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보험가격 자유화, 재무건전성 강화, 보험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및 인슈어테크로 인한 데이터분석 능력 등 보험환경 변화로 보험계리사에게 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선발시험을 포함한 보험계리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보험산업에서 보험계리사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으며 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

- 보험계리사는 미래의 보험금을 예측하여 보험료를 결정하고 수취한 보험료를 보험회사의 부채기간에 적합하게 운용하며,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여 미래에 보험계약자에게 합당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함
 -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보험계리사는 소비자의 이익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
- 보험가격 자유화로 인한 다양한 보험요율 산출, 보다 정교하고 보험환경에 적합한 지급여력 산출 방식 도입, IFRS 9 및 IFRS 17 도입으로 인한 보험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향상으로 인해 보험계리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역할 확대 및 전문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음
 - 과거에는 표준위험률 및 표준이율을 이용한 보험료 산출 및 책임준비금 적립, 정해진 공식에 의한 지급여력 계산 등 보험계리사의 역할이 제한적이었음
 - 보험료 산출 및 책임준비금 적립 방식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현금흐름을 시뮬레이션 하는 방식으로 재무건전성 측정 방법이 정교해지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회계제도 도입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보험계리사의 역할과 전문성 향상이 필요함

■ 과거에는 보험회사 내부에서 보험계리사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입지가 약했고, 매년 시험 응시자 및 선발하는 보험계리사 수도 적었음

- 보험가격이 통제되던 시기에는 보험료 산출 및 책임준비금 적립을 위한 예정기초율을 보험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없었으므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계리사들의 입지가 약했음
- 보험계리사 선발 시험도 1990년대 중반까지는 다년간 보험회사에서 보험상품 및 계리 업무 경력이 있는 응시자들이 주로 합격하였으며, 합격자 수도 연 10명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보험계리사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도 않아 보험회사에서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 이외에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도 많지 않았음

■ 이후 보험계리사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보험계리사 응시자와 최종 합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시험과목이 보험계리사의 자질을 평가하는 데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견해가 있었음

- 보험계리사의 직업적 전망과 전문성이 널리 알려지고 1997년 21명, 1998년과 1999년 40명 등 최종합격자 수를 늘리면서, 학생 응시자와 합격자 수가 점차 증가하였음
 - 2009년부터 3년간은 연간 120명의 응시자가 최종 합격하였으며, 합격자 수가 2013년에는 141명에 달하였음
 - 1990년대까지는 보험회사에서 다년간 업무경험이 있는 실무자들이 합격하던 것과 달리, 2000년대 이후에는 학생들이 다수 합격하였으며 수석합격자가 학생인 경우도 있었음
 - 이처럼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보험계리사 시험에 응시하였음
- 그러나 시험제도가 보험계리사의 업무 범위를 포괄하지 못하였으며, 보험계리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 계리제도가 표준화되는 추세에 부합하기 위하여 시험제도를 선진국 수준과 부합하게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당시 우리나라의 보험계리사 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으로 단순화되어 있었는데, 재무관리, 계리 실무 모형(modeling), 통계분석 등 보험계리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보험계리사의 기본 역량을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었음¹⁾

1) 1차 시험은 ① 경제학원론 및 경영학 중 택 1, ② 보험수학, ③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및 보험업법, ④ 외국어(영어 및 일어 중 택 1) 4과목이었으며, 2차 시험은 ① 보험이론 및 실무, ② 회계학, ③ 보험수리 3과목이었음. 1차 시험 합격 후 이듬해까지 2차 시험을 합격해야 최종 합격되었으며, 이듬해까지 2차 시험을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1차 시험에 다시 응시하여 합격해야 했음

■ 주요 선진국에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계리사가 분리되어 있으며, 시험은 보험수리뿐만 아니라 통계, 재무, 계리모형 등 계리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과목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음

- 미국 및 캐나다에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계리사가 분리되어 있으며, 선발을 위한 시험과목 및 요구조건이 광범위함²⁾
 - 생명·손해보험 공통 과목으로 기초 확률·통계(Probability), 금융수학(Financial Mathematics), 금융경제학(Financial Economics) 등을 합격해야 하며, 대학에서 개설되는 경제학, 기업재무, 통계학 등의 3과목을 수강하고 B 이상의 학점을 취득해야 함³⁾
 - 생명보험은 생명보험수리(Actuarial Mathematics), 계리모형(Statistics for Risk Modeling), 예측분석(Predictive Analytics)과 추가적인 계리실무 온라인 연수과정을 거쳐야 준 계리사(ASA)가 될 수 있으며, 정식 계리사(FSA)가 되기 위해서는 6개 전문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적인 연수와 시험을 거쳐야 함⁴⁾⁵⁾
 - 손해보험은 계리통계(Modern Actuarial Statistics), 요율산출, 규정 및 재무보고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고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야 준 계리사(ACAS)가 될 수 있으며, 정식 계리사(FCAS)가 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부채 및 보험회사 가치평가, 고급 요율산출, 재무 리스크 등에 관한 3개의 시험을 추가로 합격해야 함
- 이처럼 SoA와 CAS의 계리사 시험은 단순한 시험이라기보다 계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음
 - 다양한 분야에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었는지 평가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실시하며, 연수과정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시험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자질을 갖추도록 함
 - SoA와 CAS는 과목별 합격을 인정하고 합격한 과목의 효력은 영구히 유지되는데, 이는 응시하는 과목이 많아 모든 과목을 동시에 합격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는 응시자의 자질을 영구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보임

2) 생명보험 시험은 Society of Actuaries(SoA), 손해보험 시험은 Casualty Actuarial Society(CAS)가 주관함

3) 이를 Validation by Educational Experience(VEE)라고 하는데, 시험주관 기관이 사전에 교과과정을 확인하고 승인한 학교의 과목을 이수한 경우만 인정이 됨

4) SoA는 2018년 7월부터 ASA가 되기 위한 시험에 Exam PA(Predictive Analytics)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데이터 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과목임

5) FSA의 6개 전문 과정은 Corporate Finance & ERM, Quantitative Finance & Investment, Individual Life & Annuities, Retirement Benefits, Group & Health, General Insurance임

■ 이에 감독당국은 선진국 계리사 제도의 취지를 일부 반영하여 2014년과 2018년에 보험계리사 시험제도를 개정하였는데, 개정된 시험제도는 기존의 제도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됨

- 2차 시험의 범위를 계리 리스크관리, 보험수리학, 연금수리학, 계리모형론,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등으로 확대하였음⁶⁾
- 2차 시험에서는 과목별 합격방식을 도입하였는데, 과목별 합격 효력을 5년 동안 인정함
 - 2014년 개정에서는 1차 시험을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 동안 2차 시험을 응시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1차 시험 합격 후 5년 이내에 5과목을 모두 합격하지 않으면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과목도 다시 응시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음
 - 올해에는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합격 효력이 과목별로 5년간 유지되도록 하였음
- 사전에 선발인원을 한정하지 않고 과목별로 60점 이상을 취득할 경우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하였음⁷⁾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계리사 제도에 비하여 미흡한 부분은 여전히 있고 보험환경 변화로 인해 보험계리사의 전문성이 한층 더 요구되므로, 보험계리사 제도의 개선에 대해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함

- 보험상품의 다양화, 보험회사의 지급여력기준의 강화, 보험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에 대한 요구 강화, 인슈어테크로 인한 데이터분석 능력 필요 등으로 인해 보험산업에서 보험계리사의 역할은 확대되고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이로 인해 보험계리사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자질도 더 광범위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과목으로 보험회계, 금융수학 및 데이터 분석/예측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과목별 합격 효력을 연장하고 보험계리사 자격 취득은 쉽게 하는 대신, 보험계리사의 전문성은 시장에서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시험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계리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시험을 통한 전문성 확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회사에서 업무를 통해 깊이 있는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시험과목을 확대할 경우 보험계리사 시험에 최종 합격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므로, 과목별 합격효력 인정기간을 연장할 필요도 있음

6) 1차 시험은 ① 경제학원론, ② 보험수학, ③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보험업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④ 회계원리로 변경하였으며 영어는 공인시험으로 대체하였는데, 1차 시험의 합격여부는 기존 방식(전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과 동일함

7) 2014년에는 제도 개선 후 최초로 5과목을 모두 합격한 최종 합격자가 배출되지 않았으나, 2015년에는 25명, 2016년에는 48명, 2017년에는 62명으로 순차적으로 증가하였음

- 미국·캐나다에서는 재학 중에 2~3과목의 시험을 합격하고, 취업 후 3~5년에 걸쳐 ASA나 ACAS를 취득하고 이후 2~3년에 걸쳐 FSA나 FCAS를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임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계리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이 다르므로, 보험계리사를 별도로 선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손해보험회사에서 자동차보험이나 일반보험을 담당하는 보험계리사와 생명보험회사에서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을 담당하는 보험계리사를 동일한 제도에서 관리하는 현행 제도는 개선의 여지가 있음
 - 기초과목 이외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과목을 분리하여 생명보험 계리사와 손해보험 계리사를 별도로 선발할 필요가 있음 **kiri**